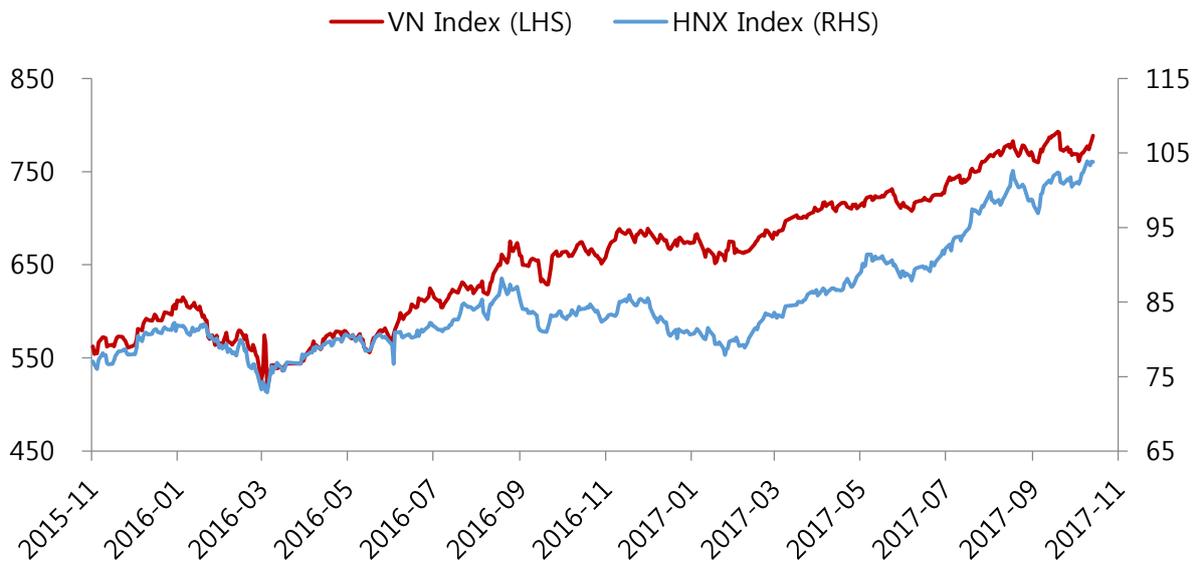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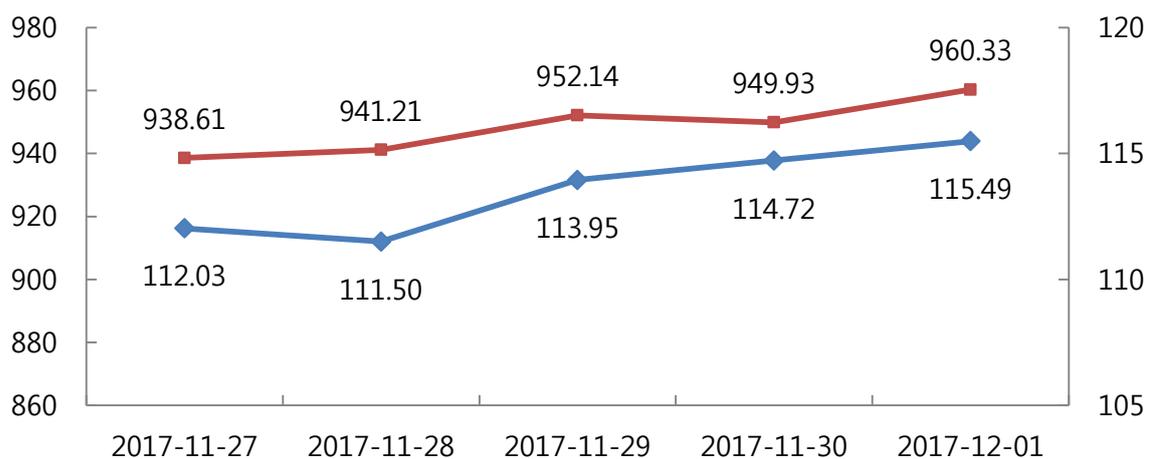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지난 주 주식시장은 VN 지수 960.33 포인트, HNX 지수 115.49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VN 지수는 몇몇 주들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 위인 VNM 의 강한 매수세를 바탕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VCB, BID, CTG 와 같은 은행주들은 하락하였으나 PLX, VRE, GAS, ROS 등의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 개별 기업 뉴스

○ Vinamilk, 설탕 사업 진출

지난 28일 베트남 최대 우유 기업 Vinamilk가 칸 호아 (Khanh Hoa)에서 Vietnam Sugar JSC (Vietsugar)의 개업식을 가졌다. 올해 Vinamilk는 설탕 사업으로의 확장을 위한 원재료 확보의 일환으로 1조 VND (4천4백만 USD)를 투자해 Khanh Hoa Sugar Co.의 지분 65%를 인수하고 이름을 Vietsugar로 바꾼 바 있다. Vinamilk 관계자는 칸 호아 지방의 설탕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및 해외 설탕 시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Mai Linh, 합병 계획 초안 발표

택시 기업 Mai Linh Group은 최근 악화된 운영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합병 계획 초안을 발표하였다. 합병이 진행된다면 Mai Linh Group의 자회사 중 Mai Linh Northern 과 Mai Linh Central의 자산, 법적소유권은 이전되고 운영은 중단될 예정이다. 합병 후에도 Mai Linh Group의 이름은 유지되며, 인수회사는 1.73조 VND의 정관자본, 고객 및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인수하게 된다.

○ Alibaba 부동산 회사, 토지 불법 매매로 공안 조사 받아

호치민 건설국은 Alibaba 부동산 주식회사가 Cu Chi 지역 Tay Bac 지방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매매하였으며, 행정처벌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안부에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Alibaba 부동산 회사는 약 97ha 규모의 토지에 대해 부지 정리 및 배상 작업, 투자자 선정 등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고객들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고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서 없이 보증금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 주요 경제 동향

■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13% 상승

베트남 통계청에 의하면 11 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3% 상승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1% 상승한 수치이다. 11 개의 소비재 바스켓 중 8 개의 물가가 상승하였는데 그 중 교통(+0.68%) 분야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약품 및 건강 서비스(+0.2%), 의류 및 신발(+0.15%), 기타 서비스(+0.14%), 음식(+0.11%)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올 11 월까지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1.44%로, 통화정책 시행에 맞추어 예견한 1.6-1.8%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베트남, 주식시장 성장률 세계 3위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 초부터 11 월 셋째주까지의 베트남 주식시장(VN 지수)의 성장률은 41%로, 몽골(91%)과 아르헨티나(60%)를 이어 3 위에 올랐다. 이러한 성장에는 베트남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11월까지의 FDI 규모, 330억 USD 기록

계획투자부는 올 11 월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330 억 USD 로 전년동기대비 82.8% 성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FDI 는 주로 신규 프로젝트, 추가 투자, 주식 매입 등을 통해 유입되었으며 계획투자부는 지금까지 총 198 억 USD 규모의 2,293 개 신규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52% 상승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공정 및 제조업 분야가 가장 많은 149 억 USD 규모의 투자자본을 유치하였으며,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전기 생산 및 송신(83 억 USD), 부동산(25 억 USD) 분야가 뒤를 이었다.

■ 해외 패션 브랜드, 베트남 진출 가속화

최근 H&M 이 베트남 첫 지점을 성공적으로 개점한 것과 더불어, 일본 의류 브랜드 Stripe 가 베트남의 대형 여성 의류 제조업체인 NEM 과 인수계약에 착수하는 등 해외 패션 브랜드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베트남 유통 협회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내에는 200 여개의 외국 패션브랜드가 있으며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소비자의 외국브랜드 선호뿐만 아니라 베트남 브랜드의 경쟁력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한해 베트남인이 의류 소비에 지출하는 총 금액은 100 조 VND(40 억 USD)이다.

■ **물류업계,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인한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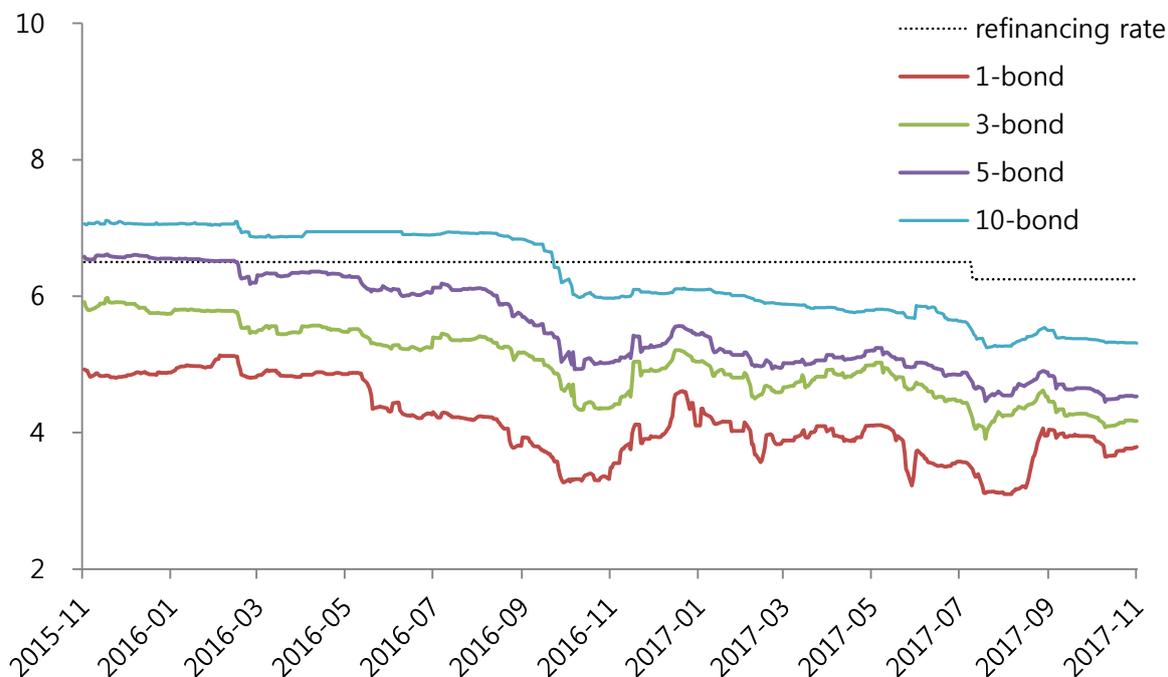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대형 물류업체를 비롯해 스타트업까지 물류업에 뛰어들고 있다. 또한 DHL, FedEx, UPS 와 같은 해외 물류업체들도 진입하였으며 Uber 등도 물류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EMS, ViettelPost 와 같은 국내 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베트남 물류협회(Vietnam Association of Logistics Service Enterprises, VLA)에 따르면 물류업은 GDP 의 20-25%를 차지하며, 연평균 12%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 **주요 도시 스마트폰 사용 인구, 전체 휴대폰 사용자의 84%**

소비자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베트남 주요 도시 인구의 95%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휴대폰 사용자의 84% (전년 78%)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농업 도시의 경우 인구의 89%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68%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닐슨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스마트폰 기업이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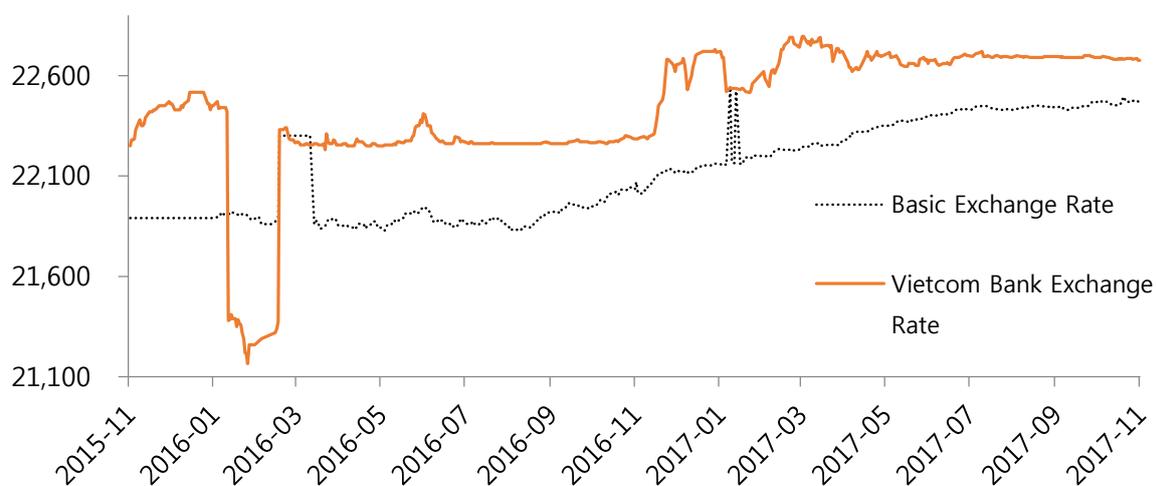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7-12-01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2,670	22,680	22,750



■ **중앙은행, 수출기업에 대한 외화 저리 대출 정책 연장**

중앙은행이 외화에 관한 시행규칙 24/2015 를 수정함에 따라, 당초 올해까지만 유지될 예정이었던 수출기업에 대한 외화 저리 대출 정책이 내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수출기업이 자리잡지 못했다는 판단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 **42 개 상업은행, 주택구입보증 제공**

중앙은행은 시행규칙 13/2017 에 따라 주택구입보증을 제공하게 될 42 개의 상업은행을 공개하였다. 이들 상업은행에는 Agribank, Vietcombank, Vietinbank, ABBank, ACB 등이 포함된다. 이 상업은행들은 부동산 구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주택구입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업은행들은 정해진 기한 내 부동산 업자가 구입자에게 부동산을 넘기지 않을 시 부동산 업자를 대신하여 구입자에게 재정 부담을 하게 된다. 보증 가능 은행 선정기준은 설립 및 영업 허가서에 보증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보증 제공 금지 처분을 받았는지의 여부이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부동산 부문 미상환대출규모 감소**

SBV 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미상환 대출 규모가 2013 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부문의 미상환 대출 규모는 2013 년 7.05%에서 올 상반기 4.06%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올해 10 월까지의 전체 대출 중 부동산 부문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10%였던 전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5. 한국 기업 동향

■ 삼성 베트남 공장, 작업환경 관련 베트남 노동부 감사받아

삼성 베트남 공장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베트남 노동부의 감사를 받았다. 노동부는 감사결과에서 삼성이 근로계약, 작업환경, 정기건강검진, 임금 및 보너스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였으나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 노동법이 일 8 시간, 주 48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삼성베트남 공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두개의 교대 근무조를 운영하였다. 노동부는 삼성에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More Information: <http://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191011/ministry-inspects-samsung-vietnam-over-worker-mistreatment.html>)

■ 롯데면세점, 나짱(Nha Trang) 공항 면세점 단독 운영권 획득

지난 27 일 롯데면세점이 베트남 나짱(Nha Trang) 국제공항 신터미널 면세점 단독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운영권 획득으로 2028년까지 10년간 나짱 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다낭공항점에 이어 베트남 2호점인 나짱공항점은 2018년 상반기 오픈할 예정이다.

(More Information: <http://www.fnnews.com/news/201711270952274469>)

■ 신한은행, 베트남 스마트뱅킹에 모바일 일회용비밀번호(OTP) 도입

지난 27 일 신한은행은 스마트폰 뱅킹 앱에서 인증을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OTP 서비스 글로벌 버전을 베트남은행 스마트뱅킹에 탑재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한 글로벌 모바일 OTP’는 신한 베트남 은행 거래 고객이 스마트 뱅킹에서 발급 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별도의 실물 보안매체를 소지할 필요 없이 핀번호 6 자리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 서비스를 베트남을 시작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More Information: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711271127102978179ad43907_18)



■ 삼성전자, 베트남에 동남아 최대 규모 B2B 종합전시관 오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동남아 최대 규모의 B2B (기업 비즈니스) 종합전시관을 마련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B2B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삼성전자는 24 일 베트남 호치민 CE 복합단지에서 현지 미디어, 거래선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2B 종합전시관 개관 행사를 진행했다고 28 일 발표했다. 전시관은 총 면적 700m² (전시장 500m², 교육센터 200m²) 규모로, 관람객이 B2B 환경에 맞는 제품군과 스마트 솔루션을 경험하는 10 개의 체험 공간으로 구성했다.

(More Information: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87985>)

■ LG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에 6494 억원 채무보증 결정

지난 1 일, LG 디스플레이가 자회사인 LG 디스플레이 베트남 하이퐁(LG Display Vietnam Haiphong)에 대해 6494 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4.8%에 해당하며 베트남 법인의 6 억 달러 규모의 차입과 관련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LG 디스플레이는 베트남 법인의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 투자를 위한 5 억달러 증자 및 100%지분 출자를 승인했다. LG 디스플레이의 베트남 공장은 지난 10 월 말 가동에 돌입했으며 한국에서 생산한 TV 및 모바일용 OLED 패널을 조립해 제조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More Information: <http://www.ebn.co.kr/news/view/919924>)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rest@jplaws.com +84-96-280-6012

정성엽 syjeonghcmc@gmail.com / syjeong@jplaws.com +84-12-2889-7626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